

예멘서 매장량 11억배럴 광구 개발

석유공사, 추정 매장량 2억5000만배럴 4광구 확보 ... 총 4개 광구

한국석유공사가 총 매장량이 2억5000만배럴로 추정되는 예멘 광구 확보에 성공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공사가 9월7일(현지시간) 예멘 신규광구 입찰에서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 석유 회사와 치열한 경쟁 끝에 예멘 4광구 낙찰에 성공했다고 9월9일 발표했다.

주로 탐사 광구로 개발 유망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량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개발 광구를 포함하고 있다.

4광구는 추정매장량이 2억5000만배럴로 탐사광구 2억1000만배럴, 개발광구 4000만배럴이다.

석유공사가 예멘에서 4광구를 낙찰받은 것은 최근 확보한 70광구, 16광구, 39광구에 이어 4번째이다.

석유공사는 4광구 전체 지분 중 50%를 확보함으로써 예멘 국영석유사(YICOM)와 공동 운영권을 행사하게 됐다.

4개 광구의 총 추정 매장량은 약 11억배럴로 국내 연간 원유 소비량 8억배럴의 약 1.4배에 달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잇따른 예멘 광구 낙찰 및 확보로 예멘 석유개발 운영권자로 입지를 굳히고 인근 중동지역 유전 개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예멘 4광구는 70광구에 인접한 광구로 연계개발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며 탐사 광구와 개발광구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탐사·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공사는 이미 확보된 70광구 운영을 위해 7월 두바이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했으며 현지사무소가 4, 16, 39 광구에 대한 운영도 전담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4광구와 이미 확보된 70, 39, 16 광구에 대해 2005년 말까지 예멘 정부와 생산물 분배계약(PSA)을 체결하고 2006년 물리탐사를 거쳐 2007년 시추 및 본격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9/12>